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어항개발 방향 소고



장 철 호
한국어촌어항협회 전무이사



최근에 어느 일간지 기자의 장수 브랜드 취재일기가 기억납니다. 비교적 오랫동안 소비자에게 사랑을 받아온 국내 27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살펴보니 이들에게는 오랫동안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남다른 비결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자의 취재에 의하면 그 비결은 시대변화를 정확하게 읽고 그에 대응하여 변신을 거듭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국내외적으로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도전의 물결 속에 휩싸여 있는 우리나라 수산업이 직면해 있는 현실을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 습니다.

농림수산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수산정책」의 추진배경에서 밝히 고 있는 현재 우리 수산업의 여건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생산의 기반이 되는 어장의 오염과 축소 그리고 불법어업 및 자원의 감소 등으로 어업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고, 어촌인력의 고령 화와 어촌의 공동화의 급속한 진행, 그로 인한 어업인의 부족 등으로 어촌사회



의 활력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가 하면, WTO/FTA 등 시장개방은 상당히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로 인한 수입의 급속한 증가는 국내 생산기반을 약화시키는 커다란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간 정부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수산업진흥대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어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1999년의 0.45%에서 2008년에는 0.24%로 떨어지고, 수산물 자급율도 1999년에 106% 이던 것이 2008년에 79%까지 떨어져 현재 우리 수산업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어업인을 비롯한 수산 관계자들이 우리 수산업이 청정 먹을거리 산업으로서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어려움을 강조하여 비전을 상실하게 했다는 당국의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부

분 공감아 되지만 우리 수산업이 지금 전반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는 점 또한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어업인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사양산업으로 비쳐지고 있는 우리 수산업의 프레임을 극복하기 위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수산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한 선택, 즉 변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고 평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의적절한 변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수산정책」의 세부과제들을 실효되면 상당히 아쉬운 점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그간 우리나라의 어촌정주공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수산업 생산기반 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던 어항에 관한 정책이 빠져 있어 어항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상당히 밀려나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필자는 지난해에 가깝게는 수산업이 국민 식생활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에 까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일본과 멀리는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어촌과 어항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때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바로는 이들 모든 나라의 수산업 형편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미 겪었거나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그 결과 수산업 전반의 활력 저하는 물론 어업인의 소득이 상당히 감소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항의 공간 재배치를 통한 어촌관광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팔자의 판단으로는 유럽은 이미 공간 재배치가 거의 끝나 있었고, 일본도 상당한 수준까지 진전되고 있었습니다.

어항은 기본적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함으로써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어업활동



을 지원하여 생산된 어업생산물을 분산시키는 어업생산 및 경제활동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되어 왔으며,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정주공간 중심에 위치하여 어항의 개발은 곧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어항은 어업인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시설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담당해 왔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어항의 기능과 관련하여 자연적, 사회·경제적 환경이 너무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지금이 변화의 강도와 형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변신을 해 나가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민소득의 향상과 주 5일 근무제의 정착, 교통망 확충, 인터넷 등 정보매체의 급속한 발달은 국민 여가생활 수요를 급격하게 증가시켜 국민관광규모는 2005년의 381백만명에서 2013년에는 622백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해양지향의 관광수요도 2005년의 95백만명에서 2013년에는 167백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수요를 해소하는데 매우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어촌·어항에 대한 변화에 맞춘 개발 요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항의 기능과 관련하여 자연환경의 변화를 살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8년 10월에 기상청이 발표한 「선진국 기후변화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 지구 평균 온도는 1906년부터 2005년까지 지난 100년 동안 0.74℃ 상승하였고, 최근 50년간의 온도 상승은 과거 100년 동안의 상승속도에 거의 2배에 달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지구온난화 속도는 점점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0년 동안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은 17cm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1961년부터 2003년까지 해수면 상승률은 연간 1.8cm,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최근에는 연간 3.1cm로 보다 빠른 속도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세계 각지의 강한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 집중호우, 한발, 열파 등의 이상 기상에 의한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지구 온난화에 의한 이상 기상 현상의 발생빈도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최근 어항의 기능과 관련하여 자연적, 사회·경제적 환경이 너무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지금이 변화의 강도와 형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변신을 해 나가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쳐 직접적으로는 해상 위험의 증가와 함께 어구 또는 어선뿐만 아니라 어업기반 시설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고, 생태학적으로는 계절성 어종의 변화와 더불어 어획량의 변동이 예상되는가 하면, 해역별 어종분포의 변화로 어장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해양의 물리적 변화는 어선의 안전수용을 위한 어항시설의 강도 및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생태적 변화는 주요 어장의 어종 및 어기, 어획량 변동으로 이어져 어항별 어선수용 규모 및 형태의 변경이 예상됩니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어촌·어항의 관광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다기능 어항, 복합 어항 건설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올해부터는 설계과 상향에 따른 구조물 안정성 평가와 더불어 연근해어업의 총조사와 병행한 해양 및 어장환경의 변화에

따른 어구·어법의 변화, 어장변동, 어획대상 어종의 변화 등 어업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환경변화를 인식하고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우리 수산업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악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대응이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항은 초기 개발단계에서 상당한 투자를 필요로 하고, 한번 개발한 후에는 구조의 변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초기개발 규모보다 더 큰 규모의 비용이 소요됨으로 쉽게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환경변화에 대한 기초적인 대응을 시작하는 지금이 어항기능의 재해석 및 기능재편을 위한 종합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 어항의 개발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그 수





어항은 초기 개발단계에서 상당한 투자를 필요로 하고, 한번 개발한 후에는 구조의 변경이 대부분 초기개발 규모보다 더 큰 규모의 비용이 소요됨으로 환경변화에 대한 기초적인 대응을 시작하는 지금이 어항기능의 재해석 및 기능재편을 위한 종합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도 많을 뿐만 아니라 재원의 한계 때문에 아직도 개발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고, 최근 해양관광 붐을 기반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관광형 어항개발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것이 완성된 후에 해양의 물리적 변화에 따른 어항기능의 재편 수요를 별도로 반영하려고 한다면 재원확보과정에서 정책의 예측기능 수행 부족과 투자의 비효율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염려를 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해양의 생태적 변화를 수용하는 어항기능의 재편에 대해서는 어항개발정책의 논의중에 아직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이에 대한 조치가 그 중요성에 비하여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어촌과 연계한 어항의 기능은 과거 단순한 어선의 안전한 수용에서부터 최근 관광 수요까지 복잡한 기능을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항개발에는 상당한 규모의 비용이 수반되고 변경도 어려우므로 개발 계획단계에서부터 미래 역할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최대한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개발함으로써 투자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형편들을 고려해 볼 때 환경의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총체적 논의를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폭 넓게 참여하는 종합적인 논의 체제를 구성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어항은 어업인에게나 국민 모두를 위하여 매우 유용한 공간이며 앞으로 그 효용성도 더욱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투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어항을 향한 이용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것과 아울러 자연적·생태적 환경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 어항개발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할 때입니다. ▲

